

[보도자료] 쿠팡, 2026 물류산업대전 참가 “2027년 전 국민 로켓배송 시대 비전 공유”

2026. 4. 1.



- AI·로보틱스 기반 스마트 물류 혁신 사례 공유
- 도서산간 ‘식품 사막화’ 해결 비전 및 소상공인·지역 농가 동반성장 모델 제시
- 물류 퀴즈 등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존 운영 예코백, 리폼 동전지갑 등 증정

2026. 04. 01. 서울 - 쿠팡이 오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해 첨단 물류 혁신 기술과 지역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문 전시회로, 다수 기업이 참가해 물류 산업의 미래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쿠팡은 이번 행사에서 ‘전 국민 로켓배송, 고객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쿠팡’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와 인공지능(AI)·로보틱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2027년까지 전국 로켓배송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상세히 설명한다. 인구소멸 위험 지역 및 도서산간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물류 운영 효율을 높여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물류 기술도 선보인다. 현장에 도입된 △무인운반로봇(AGV) △자율주행 이동로봇(ACR) △포장 자동화 로봇(오토배거) 등 로보틱스 기반의 자동화 설비 운영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했다. 쿠팡의 물류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농가,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다룬다. 아울러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고용 기회 창출과 지역 기반 일자리 확대 성과도 함께 조명한다.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공간도 운영한다. 부스 내 이벤트존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쿠팡의 물류 프로세스, 기술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O/X 퀴즈를 진행한다. 정답자에게는 피규어 캘린더, 에코백, 프레스백을 재활용(리폼)한 동전지갑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개막일인 지난달 31일 쿠팡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첨단 물류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의 일상을 책임지는 물류 인프라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환경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2027년 전 국민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